

학업성취도에 대한 소득계층별 가족소득 영향의 차이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amily income level effect about academic achievement

Kwang Hyuk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eon-ju Univ.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대물림의 강력한 매개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학업성취도에 관심을 가진다. 특히 가족소득의 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의 비선형성의 정도나 일반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내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패널조사라 할 수 있는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 교육고용패널,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등 4가지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한다. 특히 각 패널이 조사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 수준의 영향을 학년별로 두 개의 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족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아동 발달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 발달 및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 패널자료라 할 수 있는 교육종단패널, 청소년 패널, 교육고용패널, 서울아동패널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한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조사하고 있는 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 중 대표성 있게 표집된 2,844사례의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인 2차년도(2005년)와 4차년도(2007년)의 가족소득, 학업성취도, 아동성별, 부모학력, 가족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둘째,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는 2005년 현재 150개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표본으로 하여, 만 30세까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학교 경험, 그리고 초기 직업의 획득 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국가 수준의 종단적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종단연구조사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시기(2005년)와 3학년 시기(2007년)의 가족소득 및 학업성취도 변수 등이 사용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특정 자치구를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아동 전문패널 중의 하나인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자료를 분석한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서울아동패널은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서울의 한 자치구 내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인 패널조사(panel survey)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아동패널 조사 중에서 아동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인 2차년도(2005년)도의 가족소득,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넷째,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에 조사하기 시작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KEEP 조사는 중학교3학년생(2000명)과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역시, 아동이 중학교 3학년 시기인 1차년도(2004년)도의 가족소득,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조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패널 자료 별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가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 중학교

3학년 시기 순으로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 및 변수 정의

| 변수 (변수 명) | 변수정의 | 초 5 | | 중 1 | | 중 3 | |
|--------------|----------------------|-----------------|----------------|-------------------|----------------|-------------------|----------------|
| | | 서울아동 M (SD) | 청소년 M (SD) | 교육중단 M (SD) | 청소년 M (SD) | 교육중단 M (SD) | 교육고용 M (SD) |
| | 가구소득비* (비범주) | 3.40 (3.04) | 2.66 (1.40) | 2.64 (1.73) | 2.78 (1.83) | 3.11 (4.92) | 2.64 (1.71) |
| 가족소득 | 가구소득비 < 1 | 5.6 | 6.4 | 9.7 | 4.3 | 11.1 | 9.8 |
| | 1 ≤ 가구소득비 < 2 | 18.7 | 27.3 | 29.2 | 21.3 | 28.4 | 31.1 |
| | 2 ≤ 가구소득비 < 3 | 25.0 | 33.2 | 28.3 | 41.4 | 30.3 | 28.6 |
| | 3 ≤ 가구소득비 < 4 | 23.4 | 20.1 | 19.1 | 17.2 | 15.3 | 15.7 |
| | 4 ≤ 가구소득비 | 24.3 | 13.0 | 13.6 | 15.8 | 15.0 | 14.8 |
| | 빈곤여부 | | | | | | |
| | 소득수준비 1미만 (비빈곤=0) | 8.56 | 6.41 | 9.75 | 4.3 | 11.08 | 9.79 |
| | 학업성취도** | 20.41 (1.50) | 7.14 (1.50) | 179.96 (56.94) | | 162.11 (64.65) | |
| 이동 성별 | 여성 (남성=0) | .48 | .46 | .48 | .46 | .48 | .50 |
| 부모 학력 | 고졸 이하 (대학입학이상=0) | .58 | .32 | .73 | .32 | .73 | .83 |
| | 양 친부모 가족 (한부모=0) | .03 | .04 | .10 | .04 | .10 | .08 |

* 소득수준비 = 월 평균소득/각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 서울아동패널은 국어와 수학 각각 15문항의 시험 점수. 청소년패널의 초5는 5점 리커트 척도(매우 못하는 수준 1점-매우 잘하는 수준 5점)로 조사된 국어와 수학에 대한 주관적 반성적의 수준, 중1은 반 성적 비율. 한국교육중단연구의 중1, 중3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동등화된 시험 점수. 한국교육고용패널은 담임교사가 보고한 전교 석차 비율.

3.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가, 그리고 이러한 비선형적 영향이 발달시기에 따라 다른가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서울아동패널, 한국교육중단연구, 청소년패널, 교육고용패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시기, 중학교 1학년 시기,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 수준의 영향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나며,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보였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비선형적 영향은 중학교 1학년 시기보다 이른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역시, 중학교 1학년 시기보다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보다 강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비선형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아동이 어린 시기일수록 가정의 경제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부모의 교육적 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비해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가족소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고입 입시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달 시기별 여러 패널자료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소득의 비선형적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아동의 발달시기에 따른 차이를 역시, 여러 패널 자료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력성취에 대한 연구에 비해 가족소득과 학력성취의 매개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우리나라의 이 분야 연구에 의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Duncan, G. and J. Brooks-Gunn(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reg J., J. Brooks-Gunn, and P. K. Klebanov(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2): 296-318.
- Korenman, S., J. E. Miller and J. E. Sjaastad(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127-155.